

http://dx.doi.org/10.17703/JCCT.2023.9.5.761

JCCT 2023-9-92

미혼여성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the View on Marriage of Unmarried Women

이윤정*, 강석임**

Yun Jeong, Lee*, Suk Im, Gang**

요약 본 연구는 미혼여성의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일·가정양립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결혼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여,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충청지역 미혼여성 50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미혼여성의 결혼관은 2.92점(5점), 자녀관은 3.32점(5점), 성역할관 1.70점(5점), 일·가정양립 인식 정도는 2.85점(5점)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결혼관은 자녀관, 일·가정양립 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혼여성의 결혼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녀관과 성역할관이었다. 이들 변인이 결혼관을 설명하는데 48%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미혼여성들에게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미혼여성,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일·가정양립 인식

Abstract This research aimed to be provided as fundamental data for a method to equip people with positive values after identifying factors which can affect unmarried women's views on marriage. Data were collected from 508 subjects who were unmarried women in Chungbuk province, and were analysed using SPSS/WIN 22.0. The study materials were se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May to August of 2022. It turned out that responses of unmarried women were 2.95 on the view of marriage, 1.75 on the view of gender role, and 2.85 on awareness of work and family balance. The factors which affected the view of marriage were both the view of child and the view of gender role. These variables have 46% of influence to explain view of marriage. Based on this study, it can be utilized as basis sources to find out methods to enhance positive values on the view of marriage.

Key words :Unmarried Women, Views on marriage, Views on children, Gender roles, Awareness of work-family balanc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23년도 통계청 자료에서 혼인 건수는 2018년 26,818

건, 2020년 22,139건, 2022년 19,883건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초혼 연령도 2018년 남자 33.15세, 여자 30.40세, 2020년 남자 33.2세, 여자 30.8세, 2022년 남자 33.7세, 여자 31.3세로 늦어지고 있는 추세이다[1][2]. 최근의 청년들은 결혼의 애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가치관

*정회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제1저자)

**정회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8월 22일, 수정완료일: 2023년 8월 29일

게재확정일: 2023년 9월 5일

Received: August 22, 2023 / Revised: August 29, 2023

Accepted: Sept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matthew2013@kkot.ac.kr

Dept. of Social Welfare, Catholic Kkotongnae Univ, Korea

이 부각되고 출산과 양육의 비용 부담, 일과 가정 양립 등 사회경제적 요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결혼을 규범적으로 여기는 당위적 결혼관에서 벗어나 결혼이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3]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결혼관의 변화는 결혼행태 변화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고, 결혼행태 변화는 저출산 현상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5].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데 이는 한 국가의 인구 규모를 현상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대체수준 2.1명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많은 선진국에서 출산율 감소 현상이 나타났지만, 한국의 저출산 추세는 유사한 단계를 거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빠르고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6].

만 20~34세에 해당하는 미혼 남녀 2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의 53.2%, 남성의 25.8%가 ‘여성의 삶에서 결혼-출산은 중요하지 않다’에 동의하였고, 반면에 ‘여성의 삶에서 결혼-출산은 필수이다’에 여성은 4%, 남성은 12.9%로 큰 차이를 보여 미혼여성의 결혼-출산에 대한 태도가 남성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6]. 이는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을 중요하지 않은 선택의 문제로 보지만 남성의 입장에서는 여성의 결혼-출산을 인생에서 꼭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는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 미혼남성은 19.4%, 미혼여성은 15.6%에 불과하여 미혼남성보다 여성이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이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7]. 또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에 대한 계획이 없고, 노후에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은 줄어든 반면,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은 여전히 출산을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7]. 특히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과 사회진출이 증가한 것은 결혼 여부, 출산 여부 및 출산 시기 등을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와 같은 제도적 측면과 출산, 양육을 둘러싼 경제적인 불평등적 측면들이 결혼과 출산에 있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신장과 함께 저출산 문제의 요인이 되어왔다[8].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는데 비해 육아인프라가

부족하고, 성역할 관련 인식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며,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 노력이 효과적이지 못한 실정이다[9]. 이러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결혼에 부정적인 인식과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혼여성의 결혼관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자녀관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 갖는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기대에 대한 만족감과 부담감으로 긍정성과 부정성이 함께 존재한다. 즉,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출산의 동기가 되지만 양육 비용 및 육아의 부담 등 부정적 측면은 출산을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자녀관을 제시하고 있다[10][11]. 성역할관은 성역할에 대한 태도나 인식으로 성별에 따른 역할 분리에 대해 전통적 성역할을 고수하는 입장과 평등적 성역할을 추구하는 입장으로 나누어 진다[12]. 어느 사회에서나 남녀 간 역할 분담은 존재하나 우리나라에서는 가부장 제도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뚜렷한 성고정관념이 존재해 왔다.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일정한 성역할이 규정되어 있어 비전통적인 성역할관을 가지고 있는 청년일수록 기존 한국사회의 가부장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시킨다고 하였다[13][10]. 일·가정양립(Work-Family Balance)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모두 잘 해내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이거나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14][15].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정 내의 출산과 양육이 서로 선택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다. 즉 여성에 있어 일·가정양립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삶의 질 향상, 결혼 및 출산 결정에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16][17].

선행연구에서 결혼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녀관[10][11], 성역할관[10][11][18], 양성평등의식[19], 성태도[10][20], 결혼의향과 출산의지[21], 대인관계 유능성[18], 가족건강성과 이성교제 관계의 질[7] 등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미혼남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므로 결혼과 출산의 주체인 미혼여성에 초점을 두어 결혼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 일 것이다.

이와 같이, 결혼관은 애정과 사회문화 및 경제적 특성

등의 복합된 가치들이 내재한 가치관이므로, 결혼 전의 여성에게는 많은 영향과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미혼여성의 결혼관과 자녀관, 성역할관, 일·가정양립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결혼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미혼여성에게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전략적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미혼여성의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일·가정양립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 미혼여성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미혼여성의 일반적 특성과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 인식, 일·가정양립 인식 정도를 확인한다.
- 2) 미혼여성의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일·가정양립 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3) 미혼여성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미혼여성의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일·가정양립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직장인,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참여 기간 중 언제라도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설문지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를 원하는 경우 설문지와 함께 배부된 승낙서에 서명을 받는 것을 통해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와 연구를 돕는 보조원을 연구자가 직접 교육한 후에 의료기관, 산업체, 대학 등 9곳을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기보고식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불성

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50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결혼관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배세봄(2011)[22]이 사용한 결혼관 측정도구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71$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77$ 이다.

2) 자녀관

자녀 필요성과 자녀효용(도구적 가치, 정서적 가치) 관련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박현욱(2013)[23]이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자녀관 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6$ 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80$ 이다.

3) 성역할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태도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성역할 태도의 측정을 위해 배세봄(2011)[22]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을 박현욱(2013)[23]이 수정보완한 5개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남성중심의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alpha=.854$ 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84$ 이다.

4)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

일·가정양립은 일·가정 균형과 같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본 연구에서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은 박현욱(2013)[23]이 사용한 도구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정양립에 대한 균형을 이루기 쉽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6$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74$ 이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일·가정양립인식은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고, 관련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 과 같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243)

Variables	Category	N(%)	M±SD
Age			24.37±4.69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20(23.6)	
	in college	155(30.5)	
	university graduation	225(44.3)	
	Graduate school	8(1.6)	
Religion	catholic	186(36.6)	
	christian	49(9.6)	
	buddhism	42(8.3)	
	no religion	212(41.7)	
	other	19(3.7)	
Number of children	one	33(6.5)	
	two	267(52.6)	
	three	141(27.8)	
	four or more	67(13.2)	
Birth order	a single child	27(5.3)	
	1st	208(40.9)	
	2nd	101(19.9)	
	≥3rd	172(33.9)	
Growth area	big city	72(14.2)	
	small city	333(65.6)	
	farming and fishing village	103(20.3)	
Economic situation	rich	7(1.4)	
	average	380(74.8)	
	poor	121(23.8)	

2. 대상자의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일·가정양립 인식 정도

대상자의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일·가정양립 인

식 정도를 살펴보면, 결혼관은 2.92± .589점(5점), 자녀관은 3.32± .673점(5점), 성역할관 1.70± .577점(5점), 일·가정양립 인식 정도는 2.85± .438점(5점)으로 나타났다 <표 2> .

3. 관련 변인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결혼관은 자녀관($r=.681, p<.001$), 일·가정양립 인식($r=.135, p<.001$)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긍정적일수록,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결혼관과 성역할관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표 2. 대상자의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일·가정양립 인식 정도
Table 2. Marriage View, Children View, Gender roles and Awareness of work-family balance of subjects (N=508)

Variables	M±SD	Min	Max
view on marriage	2.92± .589	1.0	4.6
Views on children	3.32± .673	1.0	5.0
Gender roles	1.70± .577	2.6	5.0
Awareness of work-family balance	2.85± .438	1.4	4.2

표 3. 관련 변인 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N=508)

Variables	1	2	3	4
1= view on marriage	1			
2= Views on children	.681***	1		
3= Gender roles	-.034	.160***	1	
4=Awareness of work-family balance	.135***	.123**	-.161***	1

* $p<.05$ ** $p<.01$ *** $p<.001$

4. 미혼여성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자녀관, 성역할관, 일·가정양립 인식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을 점검한 결과, Durbin-Watson D통계량이 1.98로 2에 가까워 각 독립변수 간에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tolerance)는 0.94~0.95로 0.1보다 크게 나

타났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05~1.06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미혼여성의 결혼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녀관($\beta = .701, p < .001$)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성역할관($\beta = -.142, p < .001$)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이들 변인은 미혼여성의 결혼관을 설명하는데 48.6%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표 4>.

표 4. 미혼여성의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요인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Views on marriage of Unmarried Women (N=508)

Variables	B	SE	β	t
Constant	3.600	.248		14.530***
Views on children	.616	.029	.701	21.413***
Gender roles	-.145	.034	-.142	-4.310***
Awareness of work-family balance	.035	.044	.026	.803
$R^2 = .486, F = 158.885, p < .001$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본 연구는 미혼여성의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일·가정양립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 미혼여성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미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어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의미있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미혼여성의 결혼관은 2.92점으로 중간수준보다 낮게 나왔고 이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7]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10][21]. 이는 결혼이 여성에게 여전히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며, 여성들의 사회활동의 증가, 교육 수준 향상,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인정, 경제적 자립 등이 가능해진 사회적 변화를 보여주는 결과이다[19]. 자녀관은 3.32점 중간수준보다 다소 높은 정도로 선행연구에서 2.36점[19], 2.61점[11], 2.99점[21], 3.06점[10]으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자녀에 대한 개인의 특성과 사회문화적 특성 등이 반영된 결과라 유추되므로 추후 다양한 지역이나 규모로 확대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성역할관이 1.70점으로 낮

게 나타난 것은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성역할관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 결과[22]와 일치한다. 이는 최근 미혼여성들은 사회의 변화로 인해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하면서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전통적인 성역할관에서 벗어나면서 양성평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24][25]. 일·가정양립 인식 정도는 2.85점으로 25-45세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23]에서 3.65점과 비교했을 때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미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여성이 인식하는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이 직장 일과 육아 및 가사의 이중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거나 추가 자녀를 낳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23] 가정에서 남성들이 가사분담, 자녀양육 등 공동책임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육아휴직제도, 출산휴가제도, 믿을만한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이 일과 가사를 양립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미혼여성의 결혼관과 관련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녀관, 일·가정양립 인식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긍정적일수록,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10][11]와 일치하는 결과로 자녀의 필요성과 자녀로부터 느끼는 정서적 안정감에 대한 요구가 있는 대상자는 결혼이라는 과정을 거친 후 자녀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26]. 또한 여대생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결혼과 출산으로 일·가정양립이 어려워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17]. 따라서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면 미혼여성들은 경력단절 없이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부와 산업체의 다양한 지원책은 미혼여성들의 결혼과 출산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미혼여성의 결혼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녀관, 성역할관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미혼여성의 결혼관을 48.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10][1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자녀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평소에도 자녀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결혼을 기피하는 태도가 감소하고 결혼 의지가 증가하는 성향이 나타난다고 한 바와 같이[27] 미혼여성들은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미혼여성에게 긍정적인 결혼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예비부모교육, 강좌 등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소중함과 긍정적인 자녀에 관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혼여성의 성역할관은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보일수록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10][11][22][23]에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역할관을 가질수록 결혼을 회피하거나 늦추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선행연구[10]에서는 남자 대학생들은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성역할관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여자 대학생들에게 양성평등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결혼관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제시하고 있다. 성역할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 개인조차 바람직한 역할수행이 어렵다고 여겨질 경우 결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다[28]. 성역할관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성장하면서 주변 사람을 모델로 학습되어지므로[29] 성역할에 대한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가정, 사회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형성된 ‘평등한’ 성역할관은 긍정적인 결혼 인식과 연관되며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은 결혼 및 출산으로 이어져[30] 저출산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미혼여성의 결혼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미혼여성의 결혼관은 2.92점, 자녀관 3.32점, 성역할관은 1.70점, 일·가정양립 인식은 2.85점이었다. 미혼여성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관과 성역할관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자녀관을 가질수록, 개방적이고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진 경우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요인들은 미혼여성의 결혼관을 48.6%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미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미혼여성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저출산문제를 극

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미혼여성의 지역별 결혼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와 결혼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는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Marriage and Divorce Statistics in 2022, pp. 1-56, June, 2023,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4&list_no=424356&act=view&mainXml=Y
- [2] Statistics Korea, 2022 Population Trend Survey: Birth and death statistics, pp. 1-46. February, 2023, <https://kostat.go.kr/board.es?mid>
- [3] S.Y. Youn & S.J. Kang.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Housing Values of Baby Boomers and Echo Generation.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ol. 30 No. 2, pp. 449-452. 2018.
- [4] S.L. Lee. Attitudes Toward Marriage Among the Never-Married,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 268, pp. 6-18. 2018.
- [5] Y.J. Choi & J.S. An. Marriage Intentions and Family Strengths by types of the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Children of Unmarried Men and Wome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No.2, pp. 143-159. 2020. DOI: 10.7856/kjcls.2020.31.4.663
- [6] J.M. Park, H.J. Park & S.K. Lee. The Roles of the Quality of Life and Perceived Social Qualities on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Parenthood.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53 No. 4, pp. 33-54. 2022.
- [7] A.R. Won. The Study about Variables Influencing Marriage Intentions and Values of Unmarried Men an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2015.
- [8] Y.M. Song, J.S. Lee. Investigation of the causes of low birth-rate: Focused on the change in industrial society and the expansion of the opportunity of women for social activiti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1, pp. 27-61, 2011.
- [9] S.S. Lee. A Study on Impact of the Change in Values on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26 No. 2, pp. 95-140. 2006.
- [10] H.J. Kim, H.J. Kim & M.S. Seo. Comparison of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Views on Marriage of Male and Femal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3, pp. 153-162, 2020. DOI: 10.15207/JKCS.2020.11.3.153
- [11]N.J. Kim & S.J. Ko. Factors Influencing Attitude toward Marriag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4, pp. 178-185, 2018. DOI: 10.5762/KAIS.2018.19.4.178
- [12]M.S. Lee. The Influence of Couples 'Sex-Role Attitude and Wives' Domesticity on Their Marital Satisfaction with Reference to Wives' Job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18, No. 4, pp. 145-161. 2000.
- [13]M.A. Kim & Y.S. Song. University Students Values on Marriage, Gender Role and Children.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Association*, Vol. 18, No. 2, pp. 303-311. 2012. DOI : 10.5977/jkasne.2012.18.2.303.
- [14]J.H. Le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work-family balance poli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2011
- [15]T.H. Kim, S.A. Hong, Y.G. Yoo, H.J. Im & M.J. Ka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ork-family balance policy research.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9.
- [16]J.H. Han. A study of the effect of work · family Compatibility support policy on childbirth inten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2015.
- [17]H.J. Song, D.J. Yoon, S.S. Lee & H.Y. Jo. The Youth's Perception of Reality through the Views on Marriage and Childbirth,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24, No. 1, pp. 229-239. 2022. DOI: 10.37727/jkdas.2022.24.1.229
- [18]Y.K. Yoo. Factors Affecting the View on Marriage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8, pp. 539-560. DOI: 10.22251/jlcci.2020.20.8.539
- [19]H. Moon & C.J. Sun. The impact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n view of marriage and children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3, No. 1, pp. 447-456, 2022. DOI: 10.15207/JKCS.2022.13.01.447.
- [20]Y. H. Ju, E. S. Jung & M. S. Shin. The Relationship of College Students' Value on Marriage, Children and Sexual Attitude.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9, pp. 267-278. 2013.
- [21]I. S. Lee. The Influence of the Intention of Childbirth and Family Strengths on Marriage Valu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3, No. 3, pp. 78-86, 2022. DOI: 10.5762/KAIS.2022.23.3.78
- [22]S.B. Bae.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Childbirth Promotion Policies on the Childbirth Motives: Focusing on Full-time Unmarrie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2011.
- [23]H.W. Park. A Study on the Effects of Cognition about Low Fertility on Childbirth Will.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2013.
- [24]M. Y. Kim, Y. S. Song, "University students' values on marriage, gender role, and children",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2, pp. 303-311, 2012. DOI: 10.5977/jkasne.2012.18.2.303
- [25]A. Thornton, L. Young-Demarco, "Four decades of trends in attitudes toward family issues in the United States : The 1960s through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 Family*. Vol. 63, No. 4, pp. 1009-1037, 2001. DOI: 10.1111/j.1741-3737.2001.01009.x.
- [26]J. H. Seo. Effects of Gender Role Attitudes and Lifestyles of Unmarried Employed Women on Position about Marriage: Focused on the Presence of Their Parents as Common Dwell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2009.
- [27]S.Y. Auh & J.E. Kim. Research on the Evasion & Willingness to Marriage Formation among the Students in the National Colleges of Education.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Vol. 26, No. 3, pp. 149-163. 2013.
- [28]M.J. Chae. Gender-role attitudes and perception of marriage among Koreans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019.
- [29]J. Yun. A Psychological Study on Gender Differences: Focusing on gender role socialization process and its result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15, No. 1, pp. 21-35. 1981.
- [30]H.K. Gha & M.S. Seo. Comparison of Factors Effecting View on Marriage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Generations. *Korean society for Wellness*, Vol. 14, No. 3, pp. 299-315. 2019. DOI : 10.21097/ksw.2019.08.14.3.299.

※ 이 논문은 2022년도 가톨릭꽃동네대학교의 연구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